

ch

26. 인도 식당이 있길래 한번 가 봤어요

학습목표 ‘-길래’를 사용하여 주로 구어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다.

학습내용 -길래



생각해 봅시다



-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 본 적이 있어요?
-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해요?



본문

(엄마와 지나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엄마 지나야, 너 오늘 친구들과하고 ‘다문화거리’ 다녀온다더니 어땠니?

지나 거기 갔더니 병원이나 식당 같은 곳의 간판이 외국어로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멋진 건물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많아서 정말 이국적이었어요.

엄마 그래? 그런데 거기서 뭐했어?

지나 길거리 음식이나 가판대에서 파는 물건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이것 저것 구경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인도 식당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엄마 인도 식당? 거기서 뭘 먹었어?

지나 세트 메뉴로 커리하고 난하고 라이스하고 샐러드에 후식까지 있길래 그걸 시켜서 먹어 봤어요.

엄마 그래? 음식은 입에 맞았니? 너 인도 음식은 한번도 안 먹어봤잖아.

지나 네, 커리는 평소에 엄마가 해주시는 것하고는 달리 견과류하고 크림 소스를 곁들여서 만들어서인지 고소하고 부드러더라고요. 그리고 양파랑, 오이랑, 토마토랑 섞어서 만든 피클 같은 반찬이 있는데 상큼해서 세 번이나 더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엄마 그랬어? 엄마도 다음에는 친구들과한테 동창회를 거기서 하자고 해야겠다.

도입 질문

1.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 봤어요?
2.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3.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문화가 달라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4.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돼요?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지나가는 오늘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답: 다문화거리)
- 지나가는 다문화거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답: 이것 저것 구경도 하고, 인도 식당에 들어가 봤다.)
질문 4)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5)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지나가는 다문화거리가 어땠습니까? (답: 병원이나 식당 같은 곳의 간판이 외국어로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멋진 건물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많아서 이국적이었다.)
- 지나가 먹은 인도 음식은 어땠습니까? (답: 커리는 견과류하고 크림 소스를 곁들여서 고소하고 부드러웠다. 양파랑 오이랑 토마토랑 섞어서 만든 피클 같은 반찬은 상큼했다.)
- 6) 새 어휘를 설명한다.
- 7)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게 한다.
- 8)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 9)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상황(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 교실 상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내용 이해 질문**

- (1) '다문화거리'에 가면 여러 나라 말로 쓰인 간판을 구경할 수 있다. (O, X)
답 : (O) '다문화거리'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고, 식당이나 병원 등의 간판이 여러 외국어로 쓰여 있다.
- (2) '지나는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다문화거리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았다.(O, X)
답 : (X) 지나는 '다문화거리'에서 인도 식당이 있길래 들어가서 런치 세트 메뉴를 시켜 먹었다.

 **어휘**

다문화거리	Multicultural Street	간판	sign
어리둥절하다	to be perplexed/ to be confused/ to be puzzled	이국적이다	to be exotic
평소	everyday	견과류	nuts
곁들이다	to add	고소하다	to be tasty / to be nutty
상큼하다	to be savory / to be delicious / to be fresh	동창회	class reunion

어리둥절하다 :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서 얼떨떨하다.

-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어리둥절해요.
-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는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 전쟁 후에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삼촌은 너무 반갑고 놀라서 어리둥절해 보였다.

이국적이다 :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특징적이다.

- 이태원에 가면 이국적인 음식을 맛 볼 수 있습니다.
-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에 넋을 놓고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 제 친구는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외국 사람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평소 : 평상시.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 이 노래는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평소대로 일을 진행해 주세요.
- 운동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평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곁들이다 : 주된 음식에 다른 음식을 서로 어울리게 내어놓다.
주로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다.

- 불고기를 먹을 때 여러 가지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 회사 일에 집안 일을 곁들여 하느라고 몹시 피곤해요.
- 어제 파티에서 노래에 춤을 곁들여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상큼하다 : 냄새나 맛 따위가 향기롭고 시원하다. 보기에 시원스럽고
좋다.

- 저는 상큼한 과일 샐러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상큼한 향기가 풍겨 왔습니다.
- 오늘 예쁘다고 칭찬했더니 친구가 상큼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법학습**

-길래

뒤에 오는 문장의 원인이나 이유 또는 근거를 나타낼 때 주로 구어에서 화자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주관적인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인도 식당이 있길래 한번 가 봤어요': 인도 식당에 간 이유가 지나가다가 인도 식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① 밖이 너무 시끄럽길래 창문을 닫아 버렸어.
- ② 오다가 과일이 신선해 보이길래 조금 샀어요.
- ③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길래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탔어요.
- ④ 그 영화 예고편을 봤더니 재미있겠길래 표를 예매했어요.

'-길래'의 선행절에는 이유, 후행절에는 그로 인한 결과가 온다. 앞에 오는 내용이 과거일 때는 '-았/었/였길래'를 사용하고, 추측을 나타내는 내용일 때는 '-겠길래'를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문장 만들기**

'-길래'를 사용하여 후행문에 알맞은 선행문 만들기

- 길래 전화했어요.
- 길래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 길래 조금 샀어요.
- 길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 길래 술 한 잔 마셨어요.
- 길래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대화 연습하기**

어머니: 지나야, 지호야! 포도 좀 먹어 보렴. 집에 오다가 맛있어 보이길래 좀 샀어.

지호: 와~ 정말 싱싱하네요.

아버지: 여보, 왜 안 깨웠어요?

어머니: 아까 당신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조금 더 자라고 안 깨운 거예요.

선생님: 유리야, 수업도 다 끝났는데 교실에는 왜 왔니?

유리: 지나가 약속 장소에 안 왔길래 혹시 교실에 있나 해서 찾으러 왔어요.

민: 와, 시원하다. 고마워. 근데 물을 두 병이나 싸 왔어?

지호: 어, 오늘 날씨가 덥길래 물을 더 챙겨 왔지.



심화학습

1. '-길래' 앞의 선행절의 주어는 보통 2인칭이나 3인칭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주로 1인칭이다.

- 길이 막히길래 (내가)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이길래 (내가) 그냥 안 깨웠어요.

2. '-길래' 뒤의 후행절에는 명령, 청유, 요구, 부탁하는 내용이 올 수 없다.

- 비가 올 것 같길래 집에 계세요. (X)
- 요즘 좀 바쁘길래 다음에 만날까요? (X)

3. 보통 구어에서 말하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해 핑계를 대고 싶을 때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같이 술 한 잔 마셨어요.
- 전화를 안 하길래 벌써 다 끝나고 집에 간 줄 알았어요.

후행절에 명령, 청유, 요구, 부탁하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를 주로 사용한다.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어리둥절했어요	이국적이에요	상큼한	곁들여서
---------	--------	-----	------

- 1) 이 카레에 무슨 음식을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까요?
- 2) 차가운 물에 레몬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정말 좋아요.
- 3) 다문화거리에 가면 처음 보는 풍경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해설 : 1) 이 카레에 무슨 음식을 곁들여 먹으면 좋을까요?
 2) 차가운 물에 레몬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정말 좋아요.
 3) 다문화거리에 가면 처음 보는 풍경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2.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골라 알맞은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 1) 친구가 요리를 잘 **했길래** 오늘 저녁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 (하길래)

해설 :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나타낼 때 ‘-길래’를 사용하는데,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므로 동사의 기본형에 ‘-길래’를 붙인다.

- 2) 사람들이 벌써 밥을 다 **먹길래** 저 혼자 먹었어요.
 -> (먹었길래)

해설 : 혼자 밥을 먹은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벌써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과거형을 사용해야 한다.

- 3) 머리가 **아팠길래** 두통약을 사서 먹었어요.
 -> (아프길래)

해설 :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나타낼 때 ‘-길래’를 사용하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두통약을 사서 먹는 시점과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형을 사용한다.

1. 어휘 연습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알맞은 형태가 되도록 활용해서 쓴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길래]
- 화자가 무슨 일을 한 주관적인 이유
- 현재: -길래
- 과거: -았/었/였길래
- 추측: -겠길래
-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의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예) 사람들이 벌써 밥을 다 먹었길래 저 혼자 먹었어요. - 내가 혼자 밥을 먹은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는 행위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았/었/였길래’를 사용해야 한다.
- 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3. 다음을 남자의 말을 듣고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남자: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여자: _____

- ① 네, 날씨가 좋길래 집에 있었어요.
- ② 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길래 잠깐 산책했어요.
- ③ 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창문을 열어봤어요.

해설 :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는 대답을 고르면 된다.

2) 남자: 어제 왜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여자: _____

- ① 일찍 갔길래 좋았어요.
- ② 너무 피곤하길래 일찍 퇴근했어요.
- ③ 일이 빨리 안 끝나겠길래 먼저 나왔어요.

해설 : 남자는 어제 일찍 간 이유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일찍 퇴근했다는 대답을 고르면 된다.

3) 남자: 이 노래 CD는 언제 샀어요?

여자: _____

- ① 노래가 너무 시끄럽길래 소리를 줄였어요.
- ② 친구가 노래방에서 부르길래 따라 해 봤어요.
- ③ 어제 들었는데 좋길래 오늘 학교 오는 길에 샀어요.

해설 : 노래 CD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들어 보고 좋아서 오늘 학교 오는 길에 샀다는 대답을 고르면 된다.

3. 대화 연습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

•A.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B. 아니요. 오후에 날씨가 좋길래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과제

여러분은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께 잘못을 해서 사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까?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봤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 봅시다.

- 직접 경험한 일을 써야 한다.
- '-길래', '-았/었/였길래', '-겠길래'를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나는 평소에 지각을 잘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학교에 1시간을 지각하고 말았다. 어젯밤에 숙제를 하느라고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에는 아침마다 어머니가 깨워 주시길래 늦잠을 안 잘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잠들었는데, 오늘따라 어머니가 안 깨워 주시는 바람에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알람 시계를 맞춰 놓고 잤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눈을 떠 보니 시간은 벌써 10시였다.

도입 질문

-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사과해 본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무슨 일 때문에 사과를 했는가?
- 그때 왜 잘못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했는가?
- 사과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직접 경험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1.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지호: 네가 요즘 _____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 (바쁘다)

2) 엄마: 오늘 늦었구나.

지나: 네, 유리가 _____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어요.

(감기에 걸렸다)

2. 다음 <보기>와 같이 '-(이)나마'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이유	내가 한 일
금요일 저녁이라서 길이 막히다.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탔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한 번 먹어 봤는데 맛있다.	사 가지고 왔다.
비가 올 것 같다.	일찍 출발했다.

1) 금요일 저녁이라서 _____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탔어요.

2) 오늘 날씨가 너무 _____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3) 한 번 먹어 봤는데 _____ 사 가지고 왔어요.

4) _____ 일찍 출발했다.



함께 풀어봅시다 (답안지)

1.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지호: 네가 요즘 바쁘길래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 (바쁘다)

2) 엄마: 오늘 늦었구나.

지나: 네, 유리가 감기에 걸렸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어요.

(감기에 걸렸다)

2. 다음 <보기>와 같이 '-(이)나마'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이유	내가 한 일
금요일 저녁이라서 길이 막히다.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탔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한 번 먹어 봤는데 맛있다.	사 가지고 왔다.
비가 올 것 같다.	일찍 출발했다.

1) 금요일 저녁이라서 길이 막히길래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탔어요.

2) 오늘 날씨가 너무 춥길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3) 한 번 먹어 봤는데 맛있길래 사 가지고 왔어요.

4) 비가 올 것 같길래 일찍 출발했다.